

다해·제2309호
연중 제2주일
2025년 1월 19일

추천주보

헤라르트 다비트 <카나의 혼인 잔치>
1500년경, 나무에 오일,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목차

- 02 말씀의 향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변화된 삶, 부활의 삶!
- 03 사제 단상
말에 대한 단상
- 04 특집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⁴²
- 05 교구 소식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며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제1독서

이사 62,1-5

화답송

-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주님께 드러라, 모든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러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을. ◎
-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

제2독서

1코린 12,4-11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복음

요한 2,1-11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박훈민 브루노 신부
솔을 본당 보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변화된 삶, 부활의 삶!



오늘 복음은 너무도 유명한 ‘카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상징들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며,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듯 우리의 삶도 변화되길 희망하게 됩니다.

첫째,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에는 “그때에”로 적혀있지만, 요한 복음 2장 1절에는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전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어 오신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카나의 혼인 잔치 사건을 통해, 미리 부활 사건의 의미를 바라보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둘째, “여인이시여”입니다. 이는 요한 복음 19장 26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를 통해 성모님을 향한 예수님의 애절한 사랑과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명하신 예수님과 가혹한 하느님의 뜻에 끝까지 순명하신 성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실현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신 포도주를 마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취의 외침이자 진정한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정한 승리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상징을 통해 바라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던 많은 이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합니다. 오직 사랑. 사랑받은 체험을 통해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180도 다른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받은 체험만이 사랑할 줄 아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삶, 즉 부활의 삶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 변화되어 사랑을 살아가게 되는, 예수님의 삶은 ‘사랑의 삶’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며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과 생명을 불어넣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웁시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무한한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부음으로써,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미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찌다 보니 주보 담당 신부님께 부탁받고 차마 거절하지 못해 사제 단상의 당번이 되었습니다. 일 년 동안 두 번 정도 차례가 옵니다. 평신도 단상이 생겨서 차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제 단상이 강론 10번 준비하는 것보다 힘이 듭니다. 강론은 당일 복음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데 사목 단상은 아무런 주제도 없이 글을 쓰는 것이라 그다지 할 말도 없는데 말을 만들어서 글을 쓰려니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한 페이지 분량도 안되는 글인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글을 잘 쓰지는 못해도 부담 없이 쉽게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 무언가 바뀐 것인데 곰곰이 생각하니 말로 얻은 이득보다 손해가 더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많은 경우 서로 이해받고 배려받는 관계이기에 말의 의미가 부정확해도 시비가 붙지 않고 아무 문제 없는 듯이 넘어가니, 말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모르고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해와 배려의 한계로 결국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이 오고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말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에는 말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어느덧 듣기보다는 말하고 싶고 어느새 잘 듣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듣지 않으니 결국 들어주는 이도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보니 이대로 살다가는 진짜 나이가 들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입도 지갑도 열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아닌 지금 나와 함께해 주는 사람들에게 더 특별히 조심스럽게 말해야 나중에 말도 하고 듣기도 할 소중한 자리가 있겠습니다.

이해와 배려가 많이 부족한 각박한 세상입니다. 예민해진 세상에 나약한 인간은 쉽게 말과 글에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 덜 예민하고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쉽게 뱉는 말과 글도 조심해야 하겠다는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조심하고 서로 조금 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찬물로 세탁하기

사소페라토 <기도하시는 성모>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⁴²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

글 |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요한 복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며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모님은 사도들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 되어 나셨음을 고백하는 부분에서 마리아께 대한 주요 교리를 정리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평생 동정이시고 원죄 없이 잉태되셨으며 하늘로 불리올리심을 받았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교리들을 정리하는 후반부에서는 이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 마리아의 위치에 대해 설명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므로 마리아는 **그리스도 지체들의 어머니**시라는 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63항).

마리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에서부터 시작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 아드님과 온전히 일치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승천은 당신 아들의 부활에 특별히 참여한 사건이며, 세상 끝날 이루어질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앞당겨 실현한 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66항). 그분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모든 활동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함께 하심**으로써 하느님 백성으로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신앙과 사랑의 모범이시며, 따라서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유일무이한 지체**이시며,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보기**가 되십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67항).

그러나 모든 성인들의 통공 교리에서도 알 수 있듯, 성인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며 천상 교회와의 일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십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활동에 전적으로 함께 하셨던 마리아께서는 천상에 들어 올림을 받으신 뒤에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에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와 일치 안에서 수많은 전구를 통하여 마리아께서는 위험과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때문에 마리아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립니다(교회 헌장 62항).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교회 안에서 중개자로 불리는 마리아의 역할을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 그리스도와 똑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지나친 성모 신심은 마치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 성모님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중개자로 성모님이 필요한 것처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피조물도 구세주와 결코 똑같이 헤아려질 수 없으며, 마리아께서 교회 안에서 중개자로 불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일한 중개자 그리스도께 일치되어 그분의 구원 임무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마리아의 **중속적인 임무**를 믿고 체험하는 것이며 신자들에게도 어머니의 도움과 보호로 우리의 유일한 중개자, 곧 구원자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따르자고 권장합니다(교회 헌장 62항).



QR코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리서 397~401쪽, 963~975항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며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세계청년대회(WYD : World Youth Day)란?

1985년 가톨릭교회는 유엔이 정한 '세계 청년의 해'를 맞아 그해 3월 30~31일(성지 주일)에 로마에서 국제청년대회를 가졌고, 그해 4월 7일 주님 부활 대축일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해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을 '세계 젊은이의 날'(World Youth Day)로 정해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1986년 3월 23일 로마에서 제1차 세계청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후, 전 세계 청년들의 순례와 친교를 위한 국제 대회가 2년 또는 3년마다 개최국을 지정해서 열렸으며, 나머지 해에는 로마에서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교구 차원(diocesan level)의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41회이고 국제 대회로는 17번째입니다)



세계청년대회 주요 일정

주요 일정은 환영 행사, 개·폐막 미사, 주교들의 교리 교육, 참회 예절과 고해성사, 십자가의 길, 밤샘기도(철야기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전통적으로 대회에 교황이 참석해 주요 일정을 함께하며 강론과 연설을 하십니다(교황님과 젊은이들의 만남). 그리고 본 대회전에 1주일가량 '교구대회'(Days in Dioceses)가 열려, 참가자들이 지역 교구들에 머물며 현지 신자들과 같은 신앙을 매개로 교류를 합니다. 춘천교구는 가정과 생명, 평화의 주제로 젊은이들과 함께 믿음과 기쁨의 잔치를 열고자 합니다.

World Youth Day
DIOCESE OF
CHUNCHEON



조직과 준비위원회 구성

WYD의 주최자는 교황님이지만, 교황님을 대신하여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개최하는 교구는 지역 준비위원회 LOC(Local Organizing Committee)를 구성하고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와 연계하여 함께 대회를 준비합니다. 또한 개최 교구가 속한 주교회의의 모든 교구에는 DOC(Diocesan Organizing Committee, 교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대회전 교구 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춘천교구는 2025년 2월 중 교구 준비위원회(DOC)를 구성하고, 8월 지구 준비위원회를 구성(VOC)하여, 본격적으로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은 교구민이 함께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되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만천 본당 사목 방문

1. 31.(금)~2. 2.(주일)

축하드립니다!

수품 25주년(1. 25.) 은경축

이명호·권오준·김중광·최기홍·엄기선 신부

교구 직원 채용 공고

근무지: 춘천교구 예수 성심 영성원

모집인원: 약간 명

업무내용: 주방, 청소 및 빨래, 시설 관리
제출서류: 이력서(경력사항 상세 기재), 본
당 신부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 관련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
함),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면접일시 개별통보)
제출기한: 2. 28.(금)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처: 춘천시 공지로 300 천주교 춘천
교구청 교구 법인 담당(우편번호 24338)

☎ 033-240-6022, 6029 문의

본 당 알 림

1월 하느님 자비의 기도모임

1. 20.(월) 13~16시, 임당동 성당

기도하고 싶은 누구나 / 강의, 성시간, 고해
성사, 미사 / 매월 세번째 월요일

죽림동성당 “주일밤미사·평일낮미사”

주일 밤: 매 (주일) 21시

평일 낮: 11시 연중무휴

누구나 오실 수 있고, 언제나 환영합니다.

주교좌 죽림동 성당 상설 고해소

매 (목) 14:00~17:30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미사

1. 21.(화) 11시, 한살강당

남북한살후원회 월레미사

1. 24.(금) 15시, 한살경당

1월 예비 신학생 모임

1. 26.(주일) 14시, 춘천·남춘천: 퇴계 성당

중부: 흥천 성당 / 서부: 포천 성당

영동: 노암동 성당 / 영북: 교동 성당

부활성당 설 합동 위령 미사 안내

1. 29.(수) 9시, 11시

27.(월) 정상 운영 합니다.

☎ 033-251-7073 문의

떼제기도(Taizé)

매주 (화) 20:30, 교구청 3층 경당

누구나 참여 가능 / 찬양, 말씀, 침묵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기도

☎ 010-5540-5551

1월 카나 혼인 강좌

1. 25.(토) 18:30, 애막골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명환경부

남성 제86차 꾸르실료

1. 23.(목)~26.(주일) 가톨릭회관

가톨릭 이주민 센터 미사 안내

베트남어 미사(Vietnamese Mass): 8:30(Sun)

영어 미사(English Mass): 15:00(Sun)

장소: 춘천시 동내면 학곡서 3길 32

예비 신학생 동계 피정

2. 4.(화)~6.(목)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
교 (배론성지)

신청: 1. 31.(금)까지, 본당 사무실

☎ 033-240-6078

강원대학교병원 원목실

위치: 어린이병동 지하 1층

☎ 033-258-9487, 010-2690-8790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속초 글라라형제회 ☎ 010-4397-8683

춘천 디모테오형제회 ☎ 010-8392-8972

춘천교구 무료급식소 ‘한살밥집’ 운영안내

장소: 죽림동 주교좌 성당 식당

운영: 매주 월, 수, 토 11~13시 30분

신협 131-021-628060 (사회

복지회한살밥집)

국민 301201-04-415579 (사

회복지법인춘천교구사회복지회)

[ARS후원] 전화 한통 1만원 후원

060-700-5020 (오병이어)

봉사자 모집

월, 수, 토 봉사 가능

* 미리 연락 주시면 원하시는 날짜 조정
하여 봉사 배정이 가능합니다.

☎ 033-243-4545 춘천교구 사회복지회

저희 가톨릭춘천신협은

조합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2024년 춘천교구, 본당 및 관련시설,

그리고 교우들의 출산축하금 등으로

약 7천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가톨릭춘천신협 본점(죽림동) 033-255-6742
지점(거두리) 033-262-6742

성소모임 /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 26.(주일) 14시	윤교동 성당	010-9353-1773	수도생활과 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예수의가리다스수녀회서울관구	1. 26.(주일)	서울관구 본원(사당역1번출구)	010-5830-3217	www.icaritas.or.kr/home

중앙산부인과 (속초)

산전진찰, 부인과진료, 골다공증 관리

국가암건강검진(자궁, 유방암)

성인 예방접종, 영양수액

☎ 033-637-9887

김균하 다미아노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김길영 마르티노

타파웨어 춘천 중앙점

무공해 무독성 김치통, 냉장·렌지용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타파웨어

정수기, 혼수용품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2층

☎ 010-9042-3638 김소정 안젤라

#춘천 모든 굴삭기

볼도저 렌탈(임대)

토목, 조경, 보강토, 토사운반, 볼도저

경지정리 등, 각종 난공사, 무료 견적

☎ 010-6311-7989

최찬욱 요한·이은경 테오도라

인 준 시 설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 직원 모집

간호사, 간호조무사
☎ 031-589-0330 문의

성골롬반의집 조리원 모집

분야: 조리원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방문, 팩스, 이메일 colum2004@hanmail.net
☎ 033-262-0935~6 팩스 262-0937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분야: 시간제 청소년 동반자
서류: 1. 20.(월) 18시까지/면접: 1. 22.(수) 14시
상세내용 홈페이지(www.8181388.co.kr)
☎ 033-818-1389

마리아의 집

미혼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 입소가능
(재)착한목자수녀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입니다. ☎ 033-264-0194

갈바리노인복지센터 방문재가 어르신모집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하여가사 및 청소, 말벗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033-644-3477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 학업, 또래관계, 스마트폰 과의존 등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과 부모
대상: 도움이 필요한 모든 청소년, 부모, 지도자
운영: 월~금 9~18시, 토 9~17시, 연중/대면
☎ 033-256-2000/250-1420 이숙재 상담원

직업재활시설 밀알일터 직업적응 훈련생 모집

대상: 등록장애인 / 기간: 연중수시 / 만18
세이상 / 인원 00명 ☎ 033-261-7112

일 반 알 림

가톨릭 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3. 18.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495만원)
4. 22./5. 13. 이탈리아 일주 11일 (415만원)
5. 19. 멕시코 과달루페 중남미 3개국 13일
6. 5. 올드레야 로마 세계대회 참가단 12일
☎ 010-5235-3533 www.catholictravel.co.kr

꽃동네 젊은이를 위한 성소 피정(사랑에 머물다)

2. 8.(토) 14시~9.(주일)15시, 꽃동네사랑
의영성원(참가비: 5만원/1인 1실)
대상: 고2~만35세
☎ 010-4830-2820

라파엘여행사 성지순례 02-778-8565

4. 21. 특선이탈리아 11일 (499만원-대한항공)
4. 28.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39만원)
5. 9. 유럽4개국 성모발현지 12일 (495만원)
5. 12. 산티아고순례길과 포르투갈 13일 (479만원)

2025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2. 7.(금)~9.(주일) 살레시오회 관구관
대상: 고1~35세 미만 남성 / 마감: 1. 31.(금)
☎ 010-6221-3520 문의

2025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신학 전반 26과목 공부
접수: 11. 11.(월)~25. 2. 14.(금)
☎ 02-745-8339 ci.catholic.ac.kr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나이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 노
년을 의미 있고 충만히 살려는 프로그램
일정: 3. 17.~26./4. 21.~30./5. 12~21./6.
9.~18. (10일, 100만원)/장소: 홍천/대상: 60세 이상
☎ 010-7451-9707 문의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2. 10.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 17. 베트남 라방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 14.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 28. 터키, 그리스(사도바오로 발자취)(12일) 480만원
5. 6.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12일) 560만원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제주 3박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 (38만원), 전국 2박 3일 (30만원)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20만원)
일본 북해도, 나가사키, 아키타 3박 4일 (120만원)
☎ 010-4239-1929 마르코투어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성경완독: 2. 14.(금)~22.(토)
3. 14.(금)~22.(토)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연중피정 접수중)
한라산산행: 2. 7.~9./2. 21.~23./2. 25.~27.
성지순례: 3. 13.~16./3. 23.~26./4. 5.~8./4. 29.~5. 2.
☎ 02-773-1455, 064-796-4182 접수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42일>

25년 3. 30. / 599만원(+2100유로)예정
루르드, 파티마 순례 포함/catravel.co.kr
☎ 070-4086-0207 가톨릭 트래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봄내베이킹

플라워 케이크 주문 제작
강습, 민간 자격증
시청길 10번길 9
☎ 010-9285-0792
임정빈 미카엘라·전정구 베드로

평화 장례를 돕는 사람들(춘천)

힘들고 어려운 장례 후불제로 진행
(제휴 장례식장 할인)
묘지관리·이장·벌초/무엇이든
물어보세요(전국 어디나 가능)
☎ 010-2678-9789 홍성식 토마스

함경도 아바이 젓갈(속초)

한국인의 밥상 KBS 1TV 촬영
가자미식해 촬영지 / 가자미식해,
명란, 창란, 오징어젓갈, 각종 젓갈
☎ 632-6561, 010-3341-0470
양수근 임마누엘·박순옥 임마누엘라

춘천 장례식장

검안의 상시 대기
교구 협약 특별혜택
☎ 010-4479-4414
이성범 요셉 사무국장
전국장례지도사연합회

MZ에스테틱

피부관리에 관심있는 분 전화주세요
100%예약제 / 첫 손님 20%할인
춘천시 춘주로 55(3층)
☎ 010-2506-9913
한민지 효주아네스·홍승후 켈마

속초 나드리 여행사

페낭, 쿠알라, 말라카 / 베트남
다낭, 후에, 짜기우 3박 5일 / 터
키 일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7대교회, 에페소, 이즈밀
☎ 010-5373-8181 어일훈 느헤미야

대건 건설·조경·중기

각종 굴삭기, 덤프 임대
토목·택지·조경 공사·객토
☎ 010-5361-5641
한성근 대건안드레아·최순화 가브리엘라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